

# SOC 확충으로 군산시 성장 이끈다

### 건설교통국 업무추진 방향 브리핑... 동백대교·철도·시내외 도로·하천 등 672억원 투자

군산시 건설교통국이 16일 오후 국 업무 추진방향에 대한 언론브리핑의 시간을 갖고 국 소관 SOC에 대한 사업계획을 밝혔다.

먼저, 동백대교가 올해 말 전면 개통될 예정이다. 동백대교는 오랜 기간 추진해 온 지역숙원으로 개통되면 물류비 절감은 물론 수도권 관광객 유입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로 이어져 인접 도시와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가속화되고 내수 경제활동과 기업 활동에도 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인 철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익산~대야간 복선전철 사업과 대야~국가산단간 인입철도 사업이 2017년 2,350억원, 2018년 2,230억원 등 총 4,580억원의 예산 확보와 함께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단

계별 공정에 따라 2020년 완공 예정이며, 철도들이 개통되면 철도물류 수송체계 확충과 함께 물류비 감소 등 국가기반망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주요 시내 정체구간 해소와 접근성 확보, 지역간 이동여건 개선 등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추진된다. 올해에는 총 15개소에 대하여 4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보상과 공사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올해에는 신규사업을 배제하고 진행 중인 사업만 추진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적재적소의 교통편의 및 사업효과 증진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주변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미성·열대

시간 도로 등 도시계획도로 4개소에 대해서도 79억원을 들여 공사 및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교통여건 개선 및 균등한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시 외곽 읍면지역에는 지방도와 농어촌도로 사업이 대폭 추진된다. 지방도는 744호선 확포장 및 2건에 대해 55억원이 투자되고,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외 7건의 농어촌도로에 23억원을 투자하여, 공사 및 보상 설계 등을 추진하게 되며, 이를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 및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지역 내 관광여건 등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도로, 농로 등을 유지관리 위한 주민숙원사업도 추진된다. 이는 그동안 소규모 주민 불편사항, 교통여건 개선요구 등 지역 내 세

부 민원들을 찾아 해결하는 사업으로 도로 정비 71건(79억원), 농배수로 등 정비 79건(20억원) 등이다.

하천분야에서는 현재 육회천 등 8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2018년에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13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 보상, 설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하천 정비를 통해 재해 예방은 물론 도시경관 개선 및 시민 휴식시설 확충이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올 한해 분야별 공공 인프라를 확충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군산시를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특히 SOC는 시민 모두가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편리성과 더불어 경제활동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는 만큼 시에서는 SOC의 확충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산=김판관 기자

## 익산형 뉴딜일자리사업 참여 희망자 2월1~9일 모집

익산시는 청년 SNS 마케터 양성 등 23개 사업 88명을 모집하는 2018년 익산형 뉴딜일자리사업 참여 희망자를 오는 2월 1일부터 2월 9일까지 모집한다.

뉴딜일자리 사업은 익산에서 2016년부터 시장 공약사업으로 시행한 대표적인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시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발굴해, 참여자가 다양한 업무경험과 자기계발을 통해 민간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일자리이다.

시는 올해 9억 4천만원을 투입해 23개사업 10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사업 대상자로 선발된 인원은 오는 3월부터 최장 10개월 동안 근무할 예정이며, 1차는 88명, 나머지 19명은 하반기에 선발할 계획이다.

올해 뉴딜일자리사업은 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와 연계, 공공서비스 분야의 사회적경제 조직 가능한 사업 발굴로 장기적으로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사업 참여희망자를 모집하기 위한 공고를 오는 1월 18일부터 2월 9일까지이며, 접수는 오는 2월 1일부터 2월 9일까지 진행한다. 사업참여 희망자는 각 사업별 자격요건 등을 익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후, 본인의 적성에 맞는 사업을 택해 해당부서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익산=정양원 기자

## 익산시, 편리·안전한 도시환경 구축 주력

### 도시재생 뉴딜사업·평화육교 재가설 추진·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등

익산시가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에 주력한다.

16일 익산시에 따르면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평화육교 재가설 추진, 버스정보시스템(BIS) 확대 구축 등을 통한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에 나선다.

시는 먼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250억원의 사업비를 중앙동 일원에 투입한다.

여기에 KTX 익산역 주변지구 새마을 사업과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병행 추진해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한다.

시는 평화육교의 재가설을 위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용 대체우회도로를 4차선으로 조정하는 한편 오는 202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행정절차에 돌입한다.

또 125억이 소요되는 군도 23호 도로 확·포장 공사를 오는 2월 중 착공해 일반차량단지 교통량 증가 대비와 물류수송비용 절감에 나선다.

시는 버스정보시스템(BIS) 확대 구축을 위해 정류소 안내기를 15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농촌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행복콜 택시의 대상마을을 확대한다.

시는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해 주거복지 지원과 다양한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16일 익산시는 최광석 건설교통국 국장 주재로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시민의 불편 최소화화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전라선 폐선부지를 공원화하고 자연친화적인 도시숲을 조성해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를 구축,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

더불어 북일·모인·마동·수도산·팔봉공원 등 민간공원 5개소를 조성해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인

도·주민불편 도로 정비, 교통안전개선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도 행정력을 결집한다.

최광석 건설교통국장은 "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에 걸맞은 도시정책을 펼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 '전국체전 주 개최지 익산 표어' 공모전

### 2월 13일까지 이메일 접수... 1인당 2점까지

2018년 제99회 전국체전·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 주 개최지 익산시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화합체전'을 목표로 2018 전국체전 주 개최지 익산 표어 공모전을 연다.

이번 공모전은 익산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출품은 1인당 2점까지 가능하다. 접수는 오는 2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표어를 제작해 참가신청서 양식에 맞춰 이메일(didgns26@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출품된 표어를 대상으로 심사 거쳐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 장려상(3명) 총 6명을 선정해 익산시장 상장과 부상이 수여할 예정이며, 수상작은 2018 전국(장애인)체전을 홍보하는데 다양하게 활용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전국체전담당관 체전운영계(063-859-7653)로 문의하거나 익산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익산=정양원 기자

## 김성중 대표, 평창 '동사모2018' 홍보대사 위촉

익산시장에 도전하는 김성중 익산성장더포럼 대표(사진)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서포터즈 '동사모2018'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김성중 홍보대사는 '익산 성공시대를 열고자하는 저의 간절한 마음이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열심히 될 것이고 다가오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익산은 모두가 하나 되는 장이 되길 기대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중 홍보대사는 경찰대학 행정학과 출신으로 익산경찰서장을 마치고 지난 8월 경무관으로 명예퇴직을 했으며, 현재 원광대학교 초빙교수, 익산성장더포럼 대표와 익산연구원 소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익산=정양원 기자

## 군산시, 고군산연결도로 교통대책 추진

고군산의 4개섬을 잇는 고군산연결도로가 지난해 12월 28일 전면개통됨에 따라 군산시가 고군산을 찾는 방문객들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대책은 선유도 등의 고군산 4개섬이 육지에서부터 길이 이어졌지만 섬이라는 한정된 공간 만큼 성수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해 교통에 혼잡이 예상

됨에 따라 원활한 교통 소통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시에서는 선유도 내부도로를 공사 완공시까지 일방통행으로 운영하고 현재까지 조성된 1,585면의 주차장 외에도 올해 42억여원을 투입하여 선유도 보전소 앞 등 5개소에 공용주차장 1,350면을 추가 조성하는 한편 관광형 2층 버스를 도입해 신시도~장자도 구간을 운행한다. /군산=김판관 기자

## 원광대 최고정책관리자과정 수강생 모집

원광대학교는 2018년 행정대학원 최고정책관리자과정(CBOWU) 제53기 수강생을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

최근 행복한 사회 만들기의 초석을 다지는데 필요한 커리큘럼 구성에 관심을 쏟아 3월 초부터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분야 명사 초청특강을 하고 힐링과 웃음을 얻는 국내·외 연수 및 문화행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모집 인원은 50명 내외로 지원 자격은 기업 경영자 및 임원, 사회단체 대표 및 임원,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을 비롯한 각종 전문직 종사자다.

입학과정 정보는 원광대 행정대학원 홈페이지(http://ga.wonkwang.ac.kr)를 방문하거나, 원광대 행정대학원 교학과(063. 850. 5139)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정양원 기자

**행복을 나누는 동북아경제수심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Dream Hub GUNSAN | 군산시 GUNSAN CITY